부활 때 나의 신상정보

(고전15:50~58)

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부활 때 나의 신상정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될 텐데, 이렇게 이 땅을 살고 있는 나의 신상정보를 머릿속에 한 번 떠올려보시면 무엇이 있습니까?
생년월일,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생년월일과 관계돼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이라고 하니까 또 가족관계가 있겠죠? 직장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보탠다면 생김새, 그래서 모든 신분증에는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문도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해주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지문보다 더 명확하게 다른 것은 음색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하여간 이렇게 신상정보라는 것이 나를 남과 구분해주는 정보가 되는 것들인데, 이러한 모든 신상정보의 내용들은 다 그 특징이 내 육체에 근거된 것들이라는 겁니다.
즉, 육체의 목숨이 끝나서 죽게 되면 그 육체를 입고 살던 나라는 인격의 특징을 나타내줄만한 신상정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할 때는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체 대신에 영체를 입고 내 인격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썩는 것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고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타자와 구분해주는 모든 특징이 육체에 근거되어 있었다면, 죽어서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체를 입게 될 그 '나'는 이제 타인과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할 때까지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사도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버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잠들어 있는 그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에요.
육체를 벗었으니까, 제 경우를 얘기한다면 저는 더 이상 58년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버지도 또 어느 분의 아들도 아닙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내 인격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돼버려요.
그리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육체가 없으니까 어느 회사의 부장도 아니고 사장도 아닙니다, 선생도 제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육체가 있을 때 부자이지, 육체가 없는데 가난함이 어디 있고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음악가도 체육가도 아니에요.
이 모든 신분은 이제 오직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분으로 행한 모든 행위도 오직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육체를 벗어버리고 잠들어 있는 나는 그 자체로서는 누구냐 이거에요.
과거의 기억은 기억이고 지금 현재 잠들어 있는 그 인격은 육체를 벗어버렸으니 대체 나는 무엇으로서 '나'일 수 있으며, 또 그 '나'가 육체를 입고 살 때의 '나'와 동일한 '나'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나타내줄 신상정보가 싹 사라져버린 그런 마당에 도대체 다 묻혀서 잠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너와 나를 구분해줄 수 있는 아무런 특징적인 정보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동안 우리는 나를 나타내주는 신상정보가 육체에만 근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약수터에 가보면 물을 뜨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아침 시간에 물 담는 용기들을 쭉 줄을 세워놓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는 대신에.
그리고 용기에 물을 담는데, 용기가 제각기 다 다른 모습이고, 같은 용기의 모양이라도 좀 오래 된 용기는 좀 지저분하고 새 용기는 깨끗해서 구분이 다 갑니다.
그러니까 내 물, 네 물이 다 용기 때문에 가능해지지요.
근데 용기에 담겨져 있는 내 물과 네 물을 다 한데 쏟아부어놓으면 네 물이 어디 있고 내 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데로 뭉쳐지고 똑같아져버리고 말아요.
이런 것처럼, 도대체 내 인격을 담고 있던 용기인 육체가 다 없어져버리니까 이제 그 속에 담

겨 있던 인격의 특징, 정체성을 나타낼 정보가 없어져버렸으므로 '나'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부활할 인격체로서의 나는 육체로 살아있을 때와 동일한 인격체이고, 그 인격체가 구분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내 인격에 남아있는 영성으로 나를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것의 정도와 크기가 똑같은 경우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문이 다른 것처럼 영성의 크기와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영성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영성 신학자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도 여러 날 족히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말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육체가 사라진 뒤에도 남을 내 인격의 영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생기는 것이며, 사람마다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먼저, 영성이란 말 그대로 영적인 성질을 말합니다, 영적인 속성이에요.
내 인격 안에 있는 영적인 성질이고 영적인 속성입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모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 모(母)자 대신 아버지 부(父)자를 써서 부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려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성'이라는 말로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깁니까?
여자로서의 인격이 자녀와 관계하게 될 때 그 여자의 인격 속에 나타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기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부성이라는 것은 한 남자가 자녀와 관계할 때 그 속에 생겨나는 기질입니다.
화려하고 멋지게 싱글로 살고 있는 커리어 우먼에게는 모성이라는 성질을 찾아보기 힘들지요.
마찬가지로 결혼 안 하고 싱글을 즐기고 있는 성공한 남자에게서는 부성을 찾기가 힘들죠.
또,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서 담을 쌓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사회성을 운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성이라는 성질이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어떤 대상을 관계하게 될 때는 그 관계에 맞추어서 특화된 성질이 인격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관계하는 대상에 적합하도록 특화된 성질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렇게 볼 때, 그런 말은 없지만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평생 '돈 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 안에 돈이라는 것에 관계할 때 나타나는 일정한 기질이 형성된 겁니다, 이게 돈성이 생긴 거예요.
평생 건강만 생각하며 산 사람에게는 건강이라는 대상과 관계할 때 나타나는 특화된 어떤 기질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어떠한 대상을 관계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잘 맞춤형태의 속성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관계하며 살 때에 인격 안에 생겨나는 속성입니다,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순간들은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계기가 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하나님과 제일 먼저 관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를 관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에 대해 반응할 내용들이 결정됩니다.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적 사람이 자녀를 기르는 겁니다.
돈이라는 대상에 대해 관계할 때 돈보다 먼저 하나님을 관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 대로 돈에 대해 생각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영성적 사람의 경제활동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음으로서 만나게 되는 어떠한 대상보다도 먼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상태 가운데서 육체로 만나는 대상들을 관계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영성적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종교성과 영성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성으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부처님과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바뀌어져 있는 것이지,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마음상태와 다를 게 없는 게 종교성 아닙니까?
바알 우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 그 마음과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바알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죠.
그러면 종교성과 영성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이냐?
먼저 마음이 돈을 관계합니다, 돈을 관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건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먼저 자녀와 관계해서 모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성이 생겨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성은 결국 혈과 육에 속한 겁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승천하셔서 계신 그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을 부처님으로 바꿔도 아무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주님을 종교성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이름에 대한 애착일 뿐, 그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신상정보가 없어짐과 동시에 모든 속성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속성은 오직 육체를 통해서 관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인격 안에 생긴 것들 아닙니까?
모성도 내 육체가 있어서 자식을 관계함으로 생긴 거예요, 돈성도 내 육체가 있으므로 돈과 관계함으로 내 인격 안에 생긴 성질이에요.
돈만 보면 사족을 못 쓰는 성질, 돈이라고 하면 친구도 가족도 등 돌리게 되는 그런 마음상태, 이게 다 돈성 아닙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겨요.
권력성도 건강성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므로 육체가 죽어버리면 모든 인격 안에 형성되었던 속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속성을 따라서 행했던 행위에 대한 기억만 남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왜 그래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 다 죄니라'
믿음이 뭐에요? 제일 먼저 마음 심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과 먼저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거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거나, 모두가 다 속성이 사라진 가운데 죄의 기억만 남은 상태에요.
반면에 육체가 죽은 다음에도 내 인격에 남는 속성이 있다면 그것이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영성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상관없이 육체로 어떤 대상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고 또 죽고 백 번 죽어도 내 인격 속에 형성된 속성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과 맺은 속성의 크기와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지문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 다른 것처럼 속성의 크기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나로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이 구분의 문제를 봅니다.
영성이 아주 없는 사람들의 구분과 영성이 있는 사람들의 구분이 어떤가를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관계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들을 다 부차적으로만 관계하며 살아본 적이 없는 이 사람, 여기에서 이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과거의 죄로서만 그 사람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육체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남아있는 속성 자체가 없어요.
남아있는 속성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육체의존도가 컸다는 것이에요.
육체의존도가 커서 인격의 속성이 형성돼 있었는데, 육체가 없어져버리니까 남는 속성이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서 살던 죄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값을 치룰 수밖에 없죠.

자,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어떤 대석학이 80세가 되어서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대석학으로 어마어마한 제자군을 형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어도 죽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죄만 남아서 그 사람을 구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존경 받았다는 이런 것은 부활 때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신상정보가 아니에요.
육체가 죽었고, 이제 그 육체로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기 때문에 영체가 주어질 텐데, 영체가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실 때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남아있는 영성만을 보시는데, 대석학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기억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관계하면서 세상을 부차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면, 이 사람의 속성은 nothing이고 이 사람을 구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말씀을 따라, 모든 게 죄인 과거의 역사만이 그 사람을 구분 짓게 해준다 이 겁니다.
대통령으로 살다가 죽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어본 영성이 없다면 이 사람의 속성은 nothing입니다.
이 사람의 신상정보는 과거의 죄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관계한 것 이외에는 하나님께 칭찬 받는 어떠한 덕목도 없습니다.
이웃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웃사랑도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육체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신상정보는 재벌도 뭣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가 죽으면서 이 세상에서 갖고 있던 모든 타이틀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죄인으로만 규정될 수 있을 뿐이에요.
그가 저지른 죄에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영성이 있는 사람도 죄는 지었어요.
근데 어떻게 죄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느냐?
죄는 지었지만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관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관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십자가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하면,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십자가 이전까지의 모든 죄를 사해버리시는 역사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진 죄로서는 그 사람의 신상정보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죄가 지워져버렸으니까.
그 사람의 신상정보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육체를 통해 관계한 모든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오직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난 그 순간의 영성만이 기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에 관계했던 영성이 인격 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체를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성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틀 살아야 한번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열 번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타이밍 한 타이밍 살아계신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하여, 내 눈앞에 펼쳐있는 육체를 통해 만나게 되는 모든 현상에 대해 죽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 관계를 맺게 되는 순간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영성의 크기와 정도에 보태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성의 크기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차이로 말하면, 매순간 죽는 사람도 있고 매사건마다 죽는 사람도 있고 날마다 한 번씩 죽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죽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 영성의 크기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겠습니까?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초마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초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 사람과 분마다 관계를 맺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고, 그러니 지문이 다른 것처럼 영성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다~
아,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영성을 배양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그 말 속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자, 한번 생각해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황홀경에 빠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냥 모습만 보고 황홀경에 빠져들어 갔을까?
우리가 영체를 입고 부활할 때 우리의 아름다움의 정도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모습에 근거해서 추측해보면, 영성의 크기에서 영체를 입을 때 우리의 아름다움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 단 한순간, 초를 쪼갠들 그 초를 쪼갠 시간동안이라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상황을 대할 때 초보다 더 적은 단위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 속을 들여다보면 주님의 인격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므로 그분의 영성은 극에 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삼위일체 되시는 그분들의 합체되신 이 모습은 아름다움의 극을 이룰 것이고, 그 다음 아름다움의 모습은, 아마 천국에는 영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추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단지 아름다움의 기준을 영점으로 해서 볼 때 0점 아래가 추한 모습이라면 플러스 영역에서 무한대의 차이를 나타낼 것입니다.
영성의 차이만큼이나 다른 차이를 나타내서 결국은 모습이 다 다를 거라는 겁니다.
나는 '나'이고 '너'일 수 없기 때문에.
나와 너를 구분해주는 게 영성의 크기이고, 영성의 크기에 따라서 영체의 아름다움이 결정되지 않겠는가, 라는 얘깁니다.
잠들어있는 나의 신상정보, 육체를 떠났을 때 내 인격의 신상정보, 영성이 결정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제 누구나 다 머잖아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고 나면 이 세상에서 별의별 것을 다 누렸더라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제로입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서 영성이 발견될 수 없다면 죄로서만 나를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 주님 오늘도 영성의 크기와 정도를 배양하는 일에만 우리의 온 신경을 다 쓰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영성이 주님의 분량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